

조선왕실 수입 清末 詩箋紙 형태 및 제작처 연구*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를 중심으로 -

The Import and Use of Qing's Decorated Letter-Papers
by Joseon Royal Family in the Late 19th Century

- Centered on Decorated Letter-Papers Housed in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손 계 영 (Son, K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조선왕실 수입 清末 詩箋紙의 |
| 2. 詩箋紙는 어떤 종이인가? | 형태 |
| 3. 조선왕실 수입 清末 詩箋紙의 | 5. 맺음말 |
| 제작처 | <참고문헌> |

<초 록>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는 대부분 19세기 후반 조선왕실에서 사용하였던 편지지인데, 이는 당시 왕실에서의 편지문화, 기별문화, 교유문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왕실의 문화는 조선시대 상류층이 지향하던 문화이기에 상류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류층의 문화는 다시 아래로 흘러들러 중·하류층의 문화에 흡수되었다. 따라서 왕실에서의 시전지 문화가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 왕실 사람들이 사용하던 시전지의 제작과 구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부분은 조선시대의 기록문화와 편지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또한 이들 시전지는 청나라 수입품을 왕실에서 구입한 것으로, 당시 청말 수입품이 왕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시전지는 당시 판매되던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판매·보관되었던 시전지 상자[箋匣]와 청나라 제작처의 안내문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 가치 있는 자료이다. 箋匣에는 시전지를 제작하였던 상호명이 붙어 있어 그 제작처를 알 수 있고, 전갑 속에는 제작판매 상점의 안내문이 있어 해당 상점의 위치와 판매물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갑 속 안내문을 살펴본 결과, 청말 시전지를 제작·판매하였던 곳으로 북경·천진·소주·상해 등지에서 활동하였던 진문업체인 成興·錦盛·文美齋·麗華堂·戲鴻堂 등 10여 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시전지 등의 가공된 종이, 필묵, 인주, 안료에서부터 부채, 병풍, 대련, 족자 등의 서화를 제작·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골동, 현판 등도 취급하였으며 서화의 粧潢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 본 연구는 『명성황후 한글편지와 조선왕실의 시전지』(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도록 제2책, 2010)에 실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청말 시전지에 대하여」를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sonkey@cu.ac.kr)

접수일: 2013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7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청말 시전지의 두드러진 특징은 화려한 색상의 종이와 다양한 종류의 문양이며, 多色の 문양 인쇄, 화려한 형태의 편지봉투 등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양의 종류를 살펴보면, 花箋紙라고 부를 만큼 자주 등장하였던 花草와 果棠 문양, 편지·소식을 상징하였던 소재인 물고기·기러기[魚雁] 문양, 시구에 등장하는 인물 문양, 눈에 담고 싶은 명소의 산수풍경 문양, 희귀한 고대 유물과 銘文 문양, 이외에도 다기·서책·약기·전서 문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청말 시전지는 왕실의 소식문화와 정보교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청말 시전지가 19세기 후반 이후 조선 사람들의 편지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의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要語: 조선왕실, 청말 시전지, 청나라 수입품, 시전지 제작처

<ABSTRACT>

The decorated letter-papers collected in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re mostly those used by Joseon royal family in the late 19th Century. Those papers show the culture of letter writing and social intercourse of royal family at that time. As the culture of royal family was admired by the upper class, it influenced directly on the lives of upper class. Again the upper class's culture went down to those of middle and lower class. So, finding out where the decorated letter-paper culture came from and how the papers were produced and purchased for royal family would be a key point to understand the recording and letter writing culture of Joseon period. Those papers were imported from Qing and the royal family purchased them from domestic market. It is more noteworthy because the paper was a typical item that can explain how closely the goods imported from the late Qing were used for the daily life of Joseon royal family.

The decorated letter-papers collected in the Museum are preserved in the same shape as they were sold at that time. The packing boxes and information leaflets made by Chinese manufacturers are also kept in the Museum. The shop names of Qing's manufacturers are placed on the boxes, and the locations and handling items of shops are recorded on information leaflets in the boxes. The leaflets are from ten or more decorated letter-papers specialized shops based on Beijing, Tianjin, Suzhou, Shanghai and so on. Those shops produced and sold processed papers including decorated letter-papers, brush, Chinese ink, red chop ink, pigments, fan, folding screen, vertical plaques, scroll and so on. They also handled antiques and signboards, and were specialized in bookbinding and picture mounting.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the late Qing's decorated letter-papers were splendid color and various pattern. Other characteristics were multi-color pattern and fancy shaped envelope. Patterns were various including flower & fruit pattern which were so popular as called flower decorated paper (花箋紙), fish & wild goose pattern which symbolized news, figure pattern which expressed the persons in famous poems, nature scene pattern which drew memorable attractions, rare ancient antiquity and inscription pattern, and other patterns of tea cups, books, instrument, seal style calligraphy.

It is expected that the late Qing's decorated letter-papers can supply many important clues to study how the noticing and intercourse cultures of Joseon royal family were developed and how the papers had influenced on the letter culture of Joseon people since the late 19th Century.

Key words: Joseon royal family, the late Qing's decorated letter-papers, imported goods from Qing, manufacturers of decorated letter-papers

1. 머리말

사람은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가족·친구·동료들과 축하와 위로의 말 또는 글을 주고받는다.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안부를 묻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수단이 지금은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형태이지만 과거에는 人便을 통해 구두로 또는 편지로 이루어졌다. 문자 사용이 가능한 계층에서는 편지를 통한 소통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았고, 그만큼 종이 소비량도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편지에 사용되는 종이 가운데는 멋스러운 문양과 다양한 색상의 종이를 사용하여 소식과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색상과 문양이 있는 종이를 詩箋紙라고 한다. 시전지의 색상과 문양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글의 내용과 어우러져 글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가졌던 것이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시전지는 상당량이 전해져 공개되었고, 각 기관 또는 문중·개인의 소장 자료가 꾸준히 정리·출간되면서 지속적으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시전지로, 누군가가 시전지에 썼던 편지가 보관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시전지 형태가 소장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편지를 쓰기 위해 수집한 시전지가 당시에 판매되었던 형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편지를 쓰기 전의 상태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에 찍힌 문양과 문구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시전지 건수와 종류가 풍부하여 시전지를 제작하고 판매하였던 전문상점의 실체를 파악함과 동시에 시전지의 판매 단위와 경로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왕실에서의 시전문화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청나라에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왕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보관되었던 시전지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청말 시전지를 중심으로 시전지의 개념과 유형, 시전지를 제작·판매하였던 중국의 전문상점의 파악, 청말 시전지의 문양별 분류와 특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詩箋紙는 어떤 종이인가?1)

詩箋紙의 ‘箋’자는 편지 ‘牋’자와 통용되는 글자로 “글이나 편지를 쓰는 작은 쪽지”의 의미를 가진다. 글을 쓸 수 있는 작은 종이를 箋(또는 牋), 箋紙(또는 牋紙)라고 하였는데, 문양과 색상이 있는 편지용 종이는 꽃문양이 많다 하여 ‘花箋’이라고도 하였고, 시를 보낼 때 쓴다 하여 ‘詩箋’이라고도 하였다. 청말에 시전지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였던 상점에서는 이름난 시전지라 하여 ‘名箋(또는 名牋)’이라 이름 붙여 판매하였다.

시전지의 유래는 薛濤(768~831)와 謝景初(1020~1084)라는 인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도는 원진, 백거이, 두목과 같은 명사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자신이 직접 만든 진홍색 채색전지에 시를 써 보냈는데, 이후 이것은 ‘薛濤牋’이라 불렸다.²⁾ 사경초는 편지를 쓸 때 편리하도록 ‘牋’이라는 형태를 만들었던 송나라 사람인데, 10가지 종류의 색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³⁾ 설도와 사경초에 대한 문헌자료에서는 그들의 牋紙가 어떤 색상의 종이였는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문양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한 문헌이 없다. 元나라의 費著가 『牋紙譜』에서 설도전 이외의 여러 전지를 소개하였는데, 그 가운데 문양이 있는 전지가 포함되어 있어 비저가 생존하였던 13~14세기에 이미 문양이 있는 시전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인물의 문집인 『東國李相國集』, 『南陽先生詩

1) 제2장은 손계영, “조선시대에 사용된 시전지의 시대적 특징,” 『서지학연구』 제36집(2007), 297~320을 요약하여 설명하였음을 밝혀둔다.

2) 費著, 『歲華紀麗譜』 「牋紙譜」,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590冊, 438~439면). “薛濤本長安良家女 父郎因官萬蜀而卒 母孀養 濤及笄以詩聞外 … 濤出入幕府 自皇至李德裕 凡歷事十一鎮 皆以詩受知 其間與濤唱和者 元稹 白居易 牛僧孺 令狐楚 裴度 嚴綬 張籍 杜牧 劉禹錫 吳武陵 張祜 皆名士記載 凡二十人 競有酬和 濤僑止百花潭 躬撰深紅小彩牋 裁書吟吟 獻酬賢傑 時謂之薛濤牋 晚歲居碧雞坊 創吟詩樓 偃息於上 後段文昌再鎮成都 太和歲濤卒 七十三 … 濤所製牋特深紅一色爾.”

3) 費著, 『歲華紀麗譜』 「牋紙譜」,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590冊, 438면). “紙以人得名者有謝公 有薛濤 所謂謝公者 謝司封景初師厚 師厚創牋樣 以便書尺俗因以爲名 … 謝公有十色牋 深紅・粉紅・杏紅・明黃・深青・淺青・深綠・淺綠・銅綠・淺雲 卽十色也.”

4) 費著, 앞의 책, 439면. “做姑蘇作雜色粉紙曰假蘇牋 皆印金銀花於上 承平前輩 蓋常用之 中廢不作 比始復爲之 然姑蘇紙多布紋 而假蘇牋皆羅紋 惟紙骨柔薄耳 若加厚壯則可勝蘇牋也.”

集』, 『及菴先生詩集』 등에서 ‘詩箋’, ‘花箋’이란 용어가 산견되고 있어 고려시대에도 이미 시전지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시전지를 다룬 기록이 상당히 많다. 당시 문인들은 시나 편지를 쓰기 위한 용도로 시전지를 사용하였고, 시전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안부와 소식을 전달하였다. 절친한 인물 또는 명인의 친필을 간직하기 위해 자신의 시전지를 꺼내어 상대방에게 作詩와 筆跡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⁵⁾ 때문에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물품으로 오래 들어가는 주요 품목 중 하나였다.⁶⁾ 또한 조선 왕실 및 각 아문에서 사용하였던 주요 물자를 기록한 문헌에서 시전지의 종류와 가격을 표기한 기록이 남아있어 왕실 및 사대부 문인층에서 선호하였던 종이였음에 분명하다.⁷⁾

보통 시전지라 하면 문양이 새겨진 목판을 찍어 인쇄한 종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인쇄한 것은 아니지만 붓으로 직접 문양을 그린 종이, 금·은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표면에 문양과 색상을 넣은 종이, 문양은 없지만 화려한 색상으로 염색한 色紙, 종이와 문양에 색깔은 없지만凹凸을 이용하여 문양을 넣은 종이 등이 시전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시전지를 대상 범위로 설정하였다.

현존하는 시전지 실물로는 조선시대 쏜시기의 것이 전해지고 있어 이들 실물을 통해 시기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시기별로 그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이전부터 종이의 전면에 문양이 도포된 듯 새겨져 있는 시전지가 17세기 초반까지 사용되었고, 16세기 초중반부터 17세기 중후반까지는 글씨를 쓰기 용이하도록 세로로 竹片이 연결된 竹冊 문양의 시전지가 유행하였다. 17세기 중반부터는 죽책문양은 사라지고 종이의 우측에 작은 문양과 문구가 새겨

5) 『心田稿』 卷3. “仍各出花箋 請書此詩 以爲留別之資.”

『錦溪日記』 5月 25日. “卽做奏文數行 其文曰 風寒洊洊 道磬寥寥 明道堂上 更振大鳴 幸屬國愚蒙 願立階庭之下 聞餘響之鏗鏘 伏念僉大老相國 勿拒善變於華者也 此文正書華箋.”

6) 『日省錄』 正祖10年 丙午 9月 11日 辛巳條. “該都監啓言 上副勅例別贈外 各 清心丸 一千八百丸 竹清紙 三十卷 苔紙 十卷 五色詩箋紙 二十卷 鏡光紙 二十卷 黃筆 一百柄 式求請.”
『高宗實錄』 高宗13年 2月 初4日. “接見大官 以內下賜給日本全權之 四書 各一秩 詩箋紙 五卷 色筆 一百柄 彩墨 五十丁 白細苧 十疋 白綿紬 十疋 使訓導玄昔運傳送 啓.”

7) 『度支準折』. “唐詩箋紙 一匣價錢八錢 各色詩箋紙 一張價錢四分.”

진 시전지 형태로 변화하여 18세기 후반까지 사용되다가 19세기부터는 청나라 시전지의 유입으로 종이의 크기가 작아지고 규격화되면서 화려한 색상의 종지와 다양한 문양의 시전지가 크게 유행하였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시전지들은 이러한 시기별 특징 중 마지막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는 대부분 箋匣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판매에 사용되었던 상자 그대로의 형태이다. 匣에는 판매처의 상호명을 포함한 시전지 명칭을 별도의 종이쪽지에 쓰거나 인쇄하여 題簽 형식으로 붙였다. 예를 들면 ‘成興號에서 옛 것을 모방하여 만든 이름난 시전’의 의미로 ‘成興號仿古名牋’이라는 이름을 붙인 전갑 등이 그것이다.

소장 자료 가운데 시전지만큼 중요한 것이 시전봉투인데, 시전봉투의 종류도 적지 않게 남아있다. 시전봉투가 별도의 전갑에 하나의 상품으로 보관되어 있어 시전지와는 별도로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전지의 경우 40장씩 2묶음이 전갑에 들어있는 반면, 시전봉투의 경우에는 40장짜리 1묶음이 들어있다. 띠지에 묶여 있는 시전지 또는 시전봉투는 그대로 전갑에 넣지 않고 얇은 內紙로 묶음의 시전지를 한번 싸서 전갑에 넣어 보관하였다. 시전지·시전봉투를 싸던 내지는 대부분 시전지 제작처이자 판매처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빈 종이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보관 형태가 제작 당시의 형태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의 시전 유통 경로와 정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조선왕실 수입 清末 詩箋紙의 제작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는 대부분 청나라에서 제작한 시전지로,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시전지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상점들이 등장하여 성행하였고, 1800년대 후반에는 조선에서의 華商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시전지 등 청나라 수입품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박물관 소장 시전지는 대부분 1800년대 후반 이후부터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적인 문제는 시전지 실물에 새겨진 간지나 연호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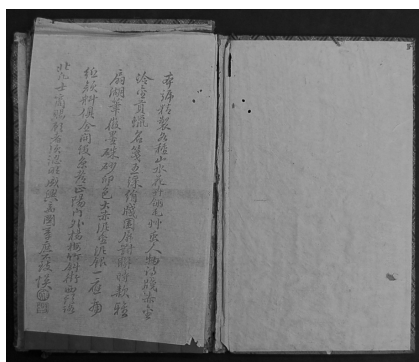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물관 소장 시전지의 대부분은 제작·판매하였던 상점의 안내문이 箋匣에 함께 보관되어 있어 당시의 시전지가 어디에서 제작되었고 판매되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들 안내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청말 시전지를 취급하였던 전문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成興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상점은 ‘成興’과 ‘錦盛’이다. ‘성흥’에서 제작한 시전지의 경우 箋匣에 ‘成興號仿古名牋’ 또는 ‘成興齋仿古名牋’이라고 표기하였다(<그림 1> 참조). 즉 ‘成興號’ 또는 ‘成興齋’로도 불리웠던 것이다.



<그림 1> 成興에서 제작한 전갑
[‘成興號’(좌) 또는 ‘成興齋’(우)로 표기]



<그림 2> 箋匣에 들어있는
‘成興’에 대한 안내문

전갑에는 시전지가 40장씩 띠지에 묶여 2묶음이 들어있는데, 2묶음의 시전지는 얇은 내지에 싸여 전갑에 보관되었다(<그림 2> 참조). 따라서 전갑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시전지를 쓴 내지인데, 대부분의 내지에는 시전지를 제작·판매하였던 상호에 대한 설명이 인쇄되어 있었다. ‘성흥’에서 제작한 내지를 살펴보면, ‘성흥’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였고,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가게에서는 각종 山水·花卉·翎毛·草虫·인물을 새긴 詩箋, 赤金, 冷金, 貢蠟, 名箋, 五綵, 絹箋, 圍屏, 對聯, 유행하는 부채, 湖州산 붓과 안휘산 먹, 주사색 인주, 빨간색 泥金·泥銀 등을 정교하게 만들고 있고, 남쪽 지방의 종이와 안료를 일체 구비하고 있습니다. 북경 正陽門 밖 楊梅竹斜街 서쪽 끝 길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成興’ 상호명이 새겨진 도장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⁸⁾

성흥에서 취급하였던 주요 물품은 詩箋·名箋 등의 가공된 종이류, 병풍, 대련, 부채, 筆墨, 인주, 안료 등이었다. 지역의 유명한 文房四友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제품에는 ‘성흥’이라는 상호명이 표기되어 생산되었다. 또한 성흥의 판매처는 북경 정양문 밖 楊梅竹斜街 거리에 있었는데, 현재 북경 유리창 서점거리 동쪽 끝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2 錦盛

‘錦盛’의 판매처도 성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성흥과 동일한 거리인 楊梅竹斜街의 동쪽 끝 길 북쪽에 있었다고 한다.⁹⁾ 금성은 ‘錦盛號’ 또는 ‘錢錦盛’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갑에 표시된 ‘錦盛號仿古名牋’과 ‘錢錦盛仿古名牋’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금성’의 경우에도 전갑 안에 보관된 안내문을 살펴보면 그 문구가 ‘성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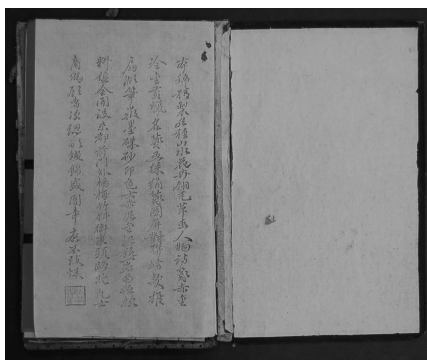
8) <成興號仿古名牋> 내지. “本號精製各種山水花卉翎毛草虫人物詩箋赤金冷金貢蠟名箋五綵絹箋圍屏對聯時款雅扇湖筆徽墨硃砂印色大赤泥金泥銀一應南紙顏料俱全開設京都正陽門外楊梅竹斜街西頭路北凡士商賜顧者須認名成興商圖章庶不致悞.”

9) <錦盛號仿古名牋> 내지. “...開設京都前門外楊梅竹斜街東頭路北凡士商賜顧者須認名錢錦盛商圖章庶不致悞.”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그림 4> 참조). 상점의 위치와 상호의 명칭만 다를 뿐 전체 문구는 동일하다. 안내문의 문구가 동일하고, 두 상점의 위치가 매우 근접하며, 금성의 전갑에서 성흥의 시전지가 보이는 점 등으로 유추하여 볼 때, 성흥과 금성이 동일한 판매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錦盛에서 제작한 전갑
[‘錦盛號’(좌) 또는 ‘錢錦盛’(우)으로 표기]



<그림 4> 箋匣에 들어있는
‘錦盛’에 대한 안내문

3.3 文美齋

시전지를 제작·판매하였던 또 다른 전문상점으로 ‘文美齋’를 들 수 있다. 문미재의 경우에도 시전지 전갑의 내지로 상점 안내문을 사용하고 있어 판매하였던 제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文美齋 [天津 北門 밖 鍋店街에 위치하고 있음]
各色箋紙와 필묵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깨끗한 안료, 청색과 적색의 泥金, 질 좋고 고운 부채, 각종 옛 것을 본뜬 부채[扇, 箑]를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¹⁰⁾

10) <文美齋仿古名牋> 내지. “文美齋 開設天津北門外鍋店街 辦各色箋紙筆墨精製漂淨顏

문미재의 판매처는 북경에서 가까운 天津에 있었으며, 현재에도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鍋店街에 위치하였다(<그림 6> 참조). 취급하였던 품종은 시전지·붓·먹·안료·부채 등으로 성홍·금성과 유사한 문방사우 전문상점이었다.



<그림 5> 文美齋의 전갑(좌)과 안내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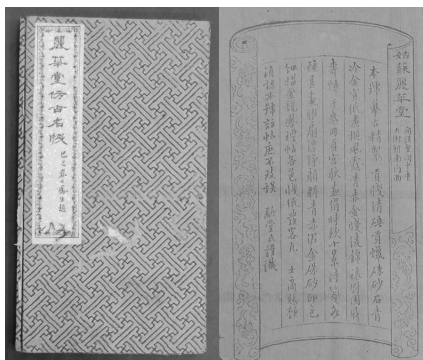
<그림 6> 문미재가 있었던
鍋店街의 현재 모습

문미재에서 제작한 시전지 중 문양을 본뜬 시기를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림 7>과 같다. 5종의 문양이 여러 색상의 종이에 인쇄되어 하나의 전갑에 들어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의 그림과 함께 발문 형식으로 光緒 10년(1884)에 문양을 본뒀음을 표기하고 있어 1884년 이후에 만들어진 시전지임을 알 수 있다. 종이의 상태와 크기, 문양과 인쇄 상태, 시전지 제작·판매 상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의 대부분이 19세기 후반의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와 같이 제작시기를 적시한 경우도 있어 시전지 제작에 관한 여러 정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料靑赤泥金上細嫩葉葵扇各種仿古純扇雅筆.”



<그림 7> 문미재에서 제조한 시전지
[광서 10년(1884)이 표기되어 있음]



<그림 8> 麗華堂의 전갑(좌)과 안내문(우)

3.4 麗華堂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북경·천진 등 河北省 근방에서 성흥·금성·문미재 등의 시전지 상점들이 성행하였다면, 江蘇省의 남동지역에 위치한 蘇州·上海에서도 시전지를 다루었던 문방사우 전문상점들이 등장하여 많은 종류의 시전지를 제작·판매하였고, 19세기 후반 조선에서도 이들 시전지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상점으로 麗華堂·松茂室·戲鴻堂·祥升泰號·陳一鶚號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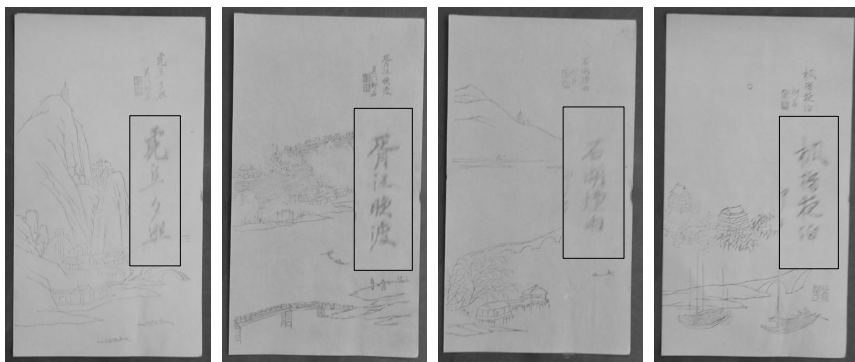
그 가운데 여화당은 蘇州에 소재하였던 판매점이었으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 가운데 여화당에서 만든 전갑은 총 4갑으로 그 중 2갑의 경우에는 여화당 상점을 소개한 안내문이 들어있어 그 위치와 제품들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다음은 안내문의 내용이다.

姑蘇[蘇州를 지칭] 麗華堂 [金閶 中市大街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게 정면은 남쪽을 향하고 있음]

우리 가게에서는 옛것을 본떠 정교하게 만든 貢牋, 淸硯, 貢蠟, 硃砂, 石靑, 冷金, 宣紙, 煮搗, 風露, 靑赤金牋, 비단족자, 병풍과 만장, 手卷과 冊頁, 宮耿과

畫絹, 유행하는 十景詩箋, 각종 서화와 부채, 깨끗한 안료, 청색과 적색의 泥金, 주사 인주, 금으로 정밀하게 용과 봉황을 새긴 禮帖, 各色箋紙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 상점의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融堂氏 삼가 씀.¹¹⁾

여화당의 판매점은 소주 金閶의 中市大街에 있었으며, 취급하였던 품목으로는 가공된 종이 · 안료 · 인주 등 문방사우뿐만 아니라 족자 · 병풍 · 서화 · 부채 · 예첩 등 서화류 등이 있어 앞서 소개한 성흥 · 금성 · 문미재의 상점보다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 9> 蘇州에 위치한 麗華堂 시전지. 소주의 명소를 소재로 만든 시전지 문양
[소주의 이름난 풍경으로 왼쪽부터 虎阜·胥江·石湖·楓橋]

특히 여화당의 시전지에는 상점이 위치한 蘇州의 명소를 소재로 다룬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의 명소를 시전지에 담아 소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상품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왼쪽부터 살펴보면, 소주의 언덕 · 강 · 호수 · 다리를 소재로 하였고, 그림의 옆에 ‘虎阜夕照’, ‘胥江晚渡’, ‘石

11) <麗華堂仿古名箋> 내지. “姑蘇麗華堂. 開設金閶中市大街朝南門面. 本號摹古精製貢牋 清硃貢蠟硃砂石青冷金宣紙煮搥風露青赤金箋綾錦袂對圍屏壽幛手卷冊頁宮耿畫絹時款十景詩箋各種書畫雅扇漂淨顏料青赤泥金硃砂印色細描金龍鳳禮帖各色箋紙發客凡士商賜顧須認本號訪帖庶不致誤融堂氏謹識.”

湖煙雨’, ‘楓橋夜泊’이라고 하여 명소를 상징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관광명소에서 판매하는 사진엽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이와 같이 상점이 소재한 지역의 명소를 시전지 문양으로 특화시켜 상품화한 것은 여화당이 가진 ‘소주’라는 지역적·공간적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주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상점으로는 여화당 이외에 松茂室이 있었으며 송무실과 관계된 자료들도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3.5 戲鴻堂

上海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던 전문상점으로는 희홍당, 祥升泰號, 陳一鶚號 등이 있었다. 이들 상점은 19세기 후반에 활동을 시작한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20세기 초 활발한 판매가 있었던 곳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상해에 기반을 둔 전문상점 시전지 여러 종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집에 안내문이 함께 보관된 사례들이 많아 상점들의 대략적인 위치나 취급 품목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희홍당의 안내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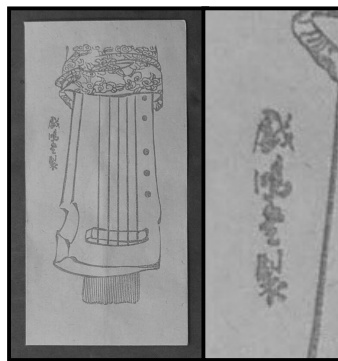
희홍당에서는 진상용으로 각종 紉摺扇, 藏扇, 貢宣, 淸硯, 泥金과 冷金, 금으로 새긴 藏經 및 각양각색의 옛것을 본뜬 牋紙, 질 좋은 畫絹, 고급 명가의 목적을 새긴 十景詩牋, 깨끗한 안료, 官禮의 필묵, 秘造八寶, 冬夏印泥 등을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옛것을 본떠 표구한 서화골동, 金字壽屏, 祭幃聯額 등을 갖춰놓고 있으며, 직접 만들어 곱게 가공한 大吉祥記와 정밀하게 제작된 각종의 장부도 있는데 가격 또한 알맞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저희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玉洋涇浜 불링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¹²⁾

12) <戲鴻堂名箋> 내지. “戲鴻堂精製進呈各款紉摺藏扇貢宣淸硯泥冷描金藏經各色仿古牋紙上細畫絹鉤刻今古名家墨蹟十景詩牋漂淨顏料官禮筆墨秘造八寶冬夏印泥內設仿古裝池裝潢古玩金字壽屏祭幃聯額自造大吉祥記加工鮮豔各項帳簿製作精良貨真價實如蒙賜顧請移玉洋涇浜拋球場南朝東門面庶不致誤.”

희흥당에서는 부채 · 안료 · 시전지 등 앞서 소개한 상점에서의 취급 물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이외에 골동 · 병풍 · 현판 등도 취급하고 있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상점이 불링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는 내용인데, 상해에서 불링장이 처음 생겼던 시기가 1900년대 초반이므로 <戲鴻堂名箋>도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시전지와 안내문임을 알 수 있다. 희흥당이 19세기 중반에 개업한 상점임을 고려한다면¹³⁾ 개업 이후 수십 년이 지나 판매되었던 시전지이다.



<그림 10> 戲鴻堂의
箋匣(左)과 안내문(右)



<그림 11> 악기를 소재로 희흥당에서
제작한 시전봉투 [‘戲鴻堂製’라 표기]

이와 같이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시전지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유행하였던 시전지 형태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희흥당 이외에도 文寶堂, 松茂室, 祥升泰號, 陳一鶚號, 榮錄堂에서 제작한 시전지와 안내문도 있어 청말 시전지 전문상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그림 12> 참조).

13) 희흥당은 淸 道光 30년인 1850년에 개업하였다(『上海輕工業志』包裝裝潢條(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그림 12> 文寶堂, 松茂室, 祥升泰號, 陳一鶚號의 안내문 (왼쪽부터)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말 시전지와 관련된 전문상점들은 문방사우 및 골동·서화류 등을 제작하고 판매하며 서적·서화를 전문적으로 장황하였던 곳이 었다. 중국에서 시전지를 제작·판매했던 상점의 위치는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북경과 친진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성흥·금성·문미재, 소주 지역의 여화당·송무실, 상해에 거점을 둔 희흥당·상승태호·진일악호 등의 시전지가 1800년대 후반 조선에 진출한 華商을 통해 수입·유통되어 조선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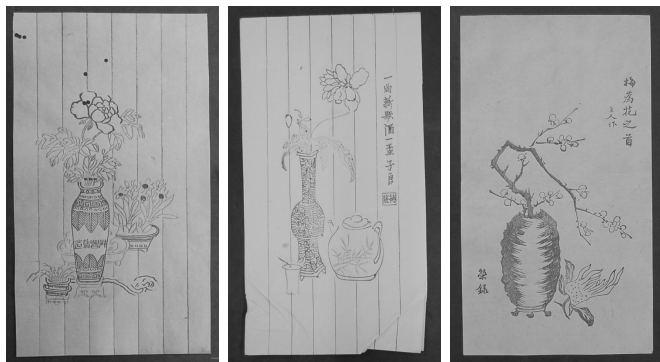
<그림 13> 청말 시전지 제작·판매 주요 상점 위치

4. 조선왕실 수입 清末 詩箋紙의 형태

청말 시전지는 이전 시기의 시전지와 비교해 보면 화려한 색상의 종이를 사용한다는 점, 문양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 다색판화 기법의 이용이 많다는 점, 기존의 종이보다 좁고 작은 형태의 종이가 등장하였다는 점, 시전봉투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점 등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의 다양한 문양을 분류하여 그 대표적인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花草・果菜

시전지를 花箋紙라고 불렀을 만큼 꽃문양은 시전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재였다. 특히 梅・蘭・菊・竹의 사군자는 고전적인 문양이면서 선비의 절개를 의미하여 오랫동안 많은 종류의 시전지 문양으로 애용되어 왔다. 매란국죽 이외에도 다양한 꽃과 식물류가 시전지의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盆花의 형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4> 盆花 문양의 시전지 [왼쪽부터 成興, 德隆, 榮錄堂 제작]

분화 형태가 아닌 꽃문양의 경우에는 곤충 또는 새를 함께 넣은 경우가 많은

반면, 분화 문양의 시전지에는 茶器나 괴석, 또 다른 분화 등 청나라에서 유행하였던 문물을 같이 배치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하였다. <그림 14>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14-1>은 여러 개의 분화를 배치한 시전지인데, 중앙의 가장 큰 화분 표면에 ‘成興號製’라는 글씨를 전서로 새겨 제작처를 문양 속에 어울리게 표기하였다.

<그림 14-2>의 시전지에는 목이 긴 화분에 꽃을 꽂아두었고 그 양옆으로 대나무 문양이 있는 술병과 술잔을 배치하였다. 문양의 옆에는 ‘一曲新歌酒一盃’라는 문구와 함께 그림을 그린 화가 ‘子良’을 표기하였고, 제작처인 德隆을 인장 형태로 표기하였다. ‘일곡신가주일배’는 송나라 晏殊(991~1055)의 칠언율시 『浣溪沙』 첫째 구이며,¹⁴⁾ “한 곡조 새로운 시에 술 한 잔 기울인다”는 의미로 술병과 술잔을 함께 새겼다.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시를 적어 보내며 술 한 잔 기울이는 모습이 전해지는 듯하다. 이상의 두 사례는 2가지 색을 이용한 다색 판화 인쇄방식으로 제작된 시전지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두 색의 인쇄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겹쳐지는 부분이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색으로 인쇄된 다른 사례에서도 종종 발견되곤 한다.

<그림 14-3> 시전지는 榮錄堂에서 제작한 것으로, 매화 가지를 꺾어 꽂은 분화 옆에 佛手柑을 함께 배치하였고, 매화가 꽃 중에 최고라는 의미로 ‘梅爲花之首’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가지를 꺾은 매화[折梅]는 소식을 의미하며, 분화 옆의 불수감은 大福의 의미를 갖는다. 折梅가 소식을 의미하게 된 것은 陸凱와 范曄의 고사와 관련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陸凱는 范曄과 우애가 있었다. 江南으로부터 매화 가지 하나를 부쳐 長安에 있는 범엽에게 주고, 아울러 ‘매화를 주는 시’를 쓰기를, “매화 가지를 꺾어[折梅] 驛使에게 부탁하여 농두인에게 부치노니, 강남에서는 가진 게 별로 없어 그저 한 가지의 봄[一枝春]을 보내오”라 하였다.¹⁵⁾

14) 시전지의 문구 ‘一曲新歌酒一盃’에서 ‘歌’가 원시에는 ‘詞’로 되어 있다. “一曲新詞酒一杯 去年天氣舊亭臺 夕陽西下幾時迴 無可奈何花落去 似曾相識燕歸來 小園香徑獨徘徊.”

15) 『太平御覽』卷19. “荊州記曰 陸凱與范曄相善 自江南寄梅花一枝 詣長安與曄 并贈花詩云 折梅逢驛使 寄與隴頭人 江南無所有 聊贈一枝春.”

이와 같이 범엽에게 매화 한 가지를 꺾어 시와 함께 보냄으로써 자신의 안부를 전한 육개의 고사에서 유래되어 ‘折梅’·‘梅信’·‘一枝春’의 문구 및 꺾은 매화는 타향에 있는 벗에게 문안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하며 널리 사용되었고, 시전지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소재 중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이 문양과 그에 맞는 간단한 문구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함이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림 15> 果菜 문양의 시전지 [왼쪽부터 錦盛, 榮錄堂, 文美齋, 錦盛 제작]

화훼나 분화 문양 이외에도 과일과 채소 문양이 시전지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과일 가운데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거나 석류 속에 씨앗이 가득 차 있는 문양은 자손의 번창을 의미한다. <그림 15-1>이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시전지이다. 석류가 터져 그 사이로 씨앗이 가득한 모습이 多産과 자손번창을 담고 있다. 錦盛에서 제작한 이 시전지 문양을 그린 사람은 任薰(1835~1893)이다. 임훈은 청말 海上畫派의 대표적인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인물화·화조화·산수화에 모두 능하였고, 금성에서 제작한 시전지 가운데 그의 작품이 적지않게 남아 있다. <그림 15-2>는 富淦이라는 인물의 작품이며 榮錄堂에서 제작한 시전지이다. 감이 감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형태와 함께 ‘洞庭嘉果味冠時新’이란 문구를 함께 넣었는데, 洞庭湖의 좋은 과일 맛은 이른 시기의 것이 신선하다는 의미이다.¹⁶⁾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감이 가지에 달려있는 문양은 앞서 석류와 마찬가지로 다산과 자손번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3>은 文美齋에서 제작한 시전지이며, 2~3개의 과채가 매달려 있는 형태이다. 그림으로 보아서는 과채의 종류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림 위에 적은 문구에서 과채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문구에는 ‘瓜瓞綿綿’이라 하여 아래 문양이 오이임을 말해준다. ‘과질면면’은 『詩經』 大雅 「綿」장에 “엷히고 엷힌 오이 덩굴이여[綿綿瓜瓞]”라 한데서 나온 것이며, 오이 덩굴이 끝없이 뻗어나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적으로 여러 개의 과채가 매달려 있는 문양은 편지를 받는 상대의 자손만대를 기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성에서 제작한 <그림 15-4>의 시전지는 무를 문양의 소재로 사용하며 무의 상쾌한 기운을 ‘爽氣襲人’이라고 표현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에는 무를 소재로 한 것이 이외에도 몇 건 더 남아있다.

4.2 動物

화초·과채 문양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동물의 문양인데, 그 가운데 조류와 어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편지를 魚雁이라 하였을 만큼 물고기와 새는 서신이나 소식을 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기러기를 뜻하는 ‘雁’은 雁足·雁使·雁帛·雁素·雁魚 등과 함께 편지나 소식의 뜻으로 쓰였는데, 이는 漢 武帝 때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킨 것으로 유명한 蘇武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¹⁷⁾

16) 시전지 문양으로 보아 제작처인 영록당의 위치가 동정호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7) 『漢書』 권54, 「李廣蘇建傳」에 그 전고가 실려 있다. 한 무제 때 소무가 中郎將으로 匈奴에 사신 갔다가 억류당하여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항복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 후에 昭帝가 흉노와 화친을 맺고 소무를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자 흉노는 거짓으로 소무가 죽었다고 핑계 대었다. 그러자 漢人 常惠가 사신에게 시키기를, “천자가 上林 안에서 쏘아 잡은 기러기[雁] 발목에 비단에 쓴 편지가 매여 있었는데, 거기에 소무가 어느 澤中에 있다고 쓰여 있었다”고 말하게 하였더니, 19년 만에 소무를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소무의 고사에서 유래되어 기러기는 편지나 소식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림 16> 조류와 곤충을 소재로 한 시전봉투와 시전지
[왼쪽부터 錦成, 成興, 成興, 錦盛 제작]

소무의 고사와 관련되는 문양으로 <그림 16-1>의 시전봉투를 들 수 있다. 갈대밭에 있는 기러기와 날아가는 기러기가 서로를 마주보는 문양이며, ‘寄君千里遙相憶’이라는 문구를 새겼다. 이는 李白의 칠언장편 『옛날 노닐던 일을 추억하며 譙郡의 元參軍에게 보내다[憶舊遊寄譙郡元參軍]』의 마지막 구로, ‘천리 밖 그대에게 보내니 멀리서 서로 기억하자’는 의미이다.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기러기와 먼 곳에 있더라도 서로를 기억하자는 내용이 어우러져 편지 속 그리움을 물씬 느끼게 해준다.

<그림 16-2>는 성흥에서 제작한 시전봉투인데 물가에 있는 학 1마리와 ‘榮封一品’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다. 학은 千壽의 의미도 있지만 일등·一品·제일을 의미한다. 특히 바닷가에 있는 학 그림은 ‘一品當朝’, 당대의 조정에서 벼슬이 일품에 오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¹⁸⁾ 영화롭게 일품에 봉해진다는 의미의 ‘영봉일품’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어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문양의 종류에 따라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18) 학은 파도치는 바닷가에 살지 않지만, 바닷가에 있는 학 그림은一品이 파도치는 바다, 즉 밀물 潮 앞에 당하여 서 있는 모습으로一品當朝의 의미를 갖는다(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집문당, 1989), 105-106).

있지만 상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림 16-3>은 성홍의 제품이며 伯和라는 인물이 그린 문양이다. 여러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모습 옆에 ‘延年益壽’의 의미로 ‘延年’이라 새긴 시전지이다. 상대의 長壽를 기원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아 날아가는 새들은 학인 것으로 보인다. 장수의 상징은 학 이외에 나비를 들 수 있다. 나비는 耄壽인 80세의 의미로 장수의 상징 중 하나이다. <그림 16-4>는 연꽃 위로 나비 1쌍이 나는 문양과 ‘穿花蛺蝶深深見’이란 문구가 함께 있다. 이 문구는 杜甫의 칠언율시 『曲江』의 한 시구인데,¹⁹⁾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술빛은 늘상 가는 곳마다 있거니와
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다네
꽃을 파고드는 나비는 깊은 꽃 속에 보이고
꿈무니로 물질한 잠자리는 천천히 나는구나

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
穿花蛺蝶深深見
點水蜻蜓款款飛

연꽃을 파고드는 나비 1쌍과 함께 ‘꽃을 파고드는 나비가 깊은 꽃 속에 보인다’는 두보의 시구를 함께 넣어 상대에 대한 장수를 기원한 것이다.



<그림 17> 어류 및 포유동물을 소재로 한 시전지와 시전봉투
[왼쪽부터 成興, 榮錄堂, 榮錄堂 제작]

19) “朝回日日典春衣 每日江頭盡醉歸 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 穿花蛺蝶深深見 點水蜻蜓款款飛 傳語風光共流轉 暫時相賞莫相違.”

편지나 소식의 의미로 기러기[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물고기, 특히 잉어이다. 잉어가 편지·소식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멀리서 수자리에 살고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심정을 그린 古樂府詩에서 유래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⁰⁾

손님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客從遠方來
나에게 잉어 두 마리를 주기에	遣我雙鯉魚
아이 불러 잉어를 삶게 했더니	呼兒烹鯉魚
뱃속에서 찢막한 서신이 나오네	中有尺素書
꿰어앉아 서신을 읽어보니	長跪讀素書
서신 안에 결국 뭐라 썼을까	書中竟何如
편지 앞에는 밥 많이 먹으라 하고	上有加餐食
뒤에는 길이 그리워한다 하였네	下有長相憶

멀리서 객이 가져온 잉어 두 마리를 갈라보니 그 안에서 아내가 보낸 작은 서신이 나왔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어 잉어와 尺素는 서신을 가리키거나 멀리서 그리워하는 정을 표현하는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이다. <그림 17-1>에는 고사에 등장한 잉어 2마리를 표현하였고, 그 옆에 ‘雙魚尺書’라고 적었다. 2마리의 잉어 뱃속에 편지[尺素]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즉 그리운 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뜻하는 문양과 문구를 사용한 시전지이다.

조류나 어류에 비해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시전지 문양으로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포유동물이다. 호랑이, 해태, 용에서부터 코끼리, 사슴 등을 소재로 사용하곤 하였다. 그 중 2가지를 소개하면 <그림 17-2>와 <그림 17-3>이다. 전자는 호랑이와 함께 ‘風采靡然’이라고 새긴 시전지로, 호랑이의 위엄 있는 풍채를 표현하였고, 후자의 시전지에는 불교에서 위용과 덕을 상징하는 코끼리 문양과 불교 사찰의 의미로 ‘象敎化城’ 문구를 넣었다.²¹⁾ 이와 같이 위엄이 있는 호랑

20) [梁]蕭統, 『文選』 「飲馬長城窟行」 (上海古籍出版社), 1277-1278면.

21) ‘象敎’는 불교를 의미하며, ‘化城’은 절[寺]을 뜻한다. ‘화성’은 『法華經』에 法華道師가 험한 길 가운데서 변화를 부려 한 城을 만들고 피로한 대중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쉬게 하였다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나 신비의 동물인 코끼리·해태·용 등 쉽게 볼 수 없거나 실존하지 않는 동물을 소재로 사용한 시전지는 해당 동물의 형태와 그 신비감을 통해 민속신앙 또는 종교적 의미를 띠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4.3 인물·산수

청말 시전지 문양의 특징 중 하나가 시구에 등장하는 인물을 형상화한다는 점이다. 특히 文美齋와 松茂室의 시전지에서 인물 문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18> 인물을 소재로 한 시전지 [왼쪽부터 文美齋, 文美齋, 松茂室 제작]

<그림 18-1>과 <그림 18-2>는 문미재에서 만든 시전지로 이와 같은 인물 문양 시전지가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문미재의 인물 시전지가 다양하게 소장되어 있다. 전자의 시전지에는 삿갓과 도롱이를 쓴 한 남성이 낚싯대를 들고 서있는 모습의 문양이 있고, 그 옆에 ‘靑笠笠綠蓑衣 斜風細雨不須歸’라고 적었다. 이것은 唐 張志和의 『漁父詞』 한 구절로, ‘푸른 삿갓 쓰고 초록색 도롱이 걸쳤으니, 비긴 바람 가랑비에 굳이 돌아갈 것 없네’라는 의미이다. 시에서 서술한 어부를 등장시켜 隱逸의 삶을 형상하는 문양과 문구를 넣었던 것이다. 후자의 문양은 한 여성과 아이를 소재로 하였고, ‘採桑蠶事緊 未製踏靑鞋’라는

문구를 함께 넣었다. 즉, ‘뽕잎 따고 누에치는 일을 하건만 푸른 짚신 만들어 신지도 못하네’라는 의미인데 淸 王倩의 칠언절구 『贈村女』의 두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²²⁾ 그림 왼쪽 상단에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모습을 새겨 넣은 것으로 보아 혹 수자리 사는 남편을 기다리며 고된 노역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의 고달픈 심정을 형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림 18-3>은 송무실에서 만든 시전지이다. 그 문양은 한 노인이芭蕉를 뒤로 하고 한 손에는 부채를 쥔 채 바위를 향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인데, 별도의 관련 문구가 없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파초·바위·부채 등이 예로부터 선비의 한적한 삶을 상징하는 주요 소재로 자주 등장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시전지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림 19> 山水를 배경으로 문양을 넣은 시전지 [왼쪽부터 麗華堂, 麗華堂, 文寶堂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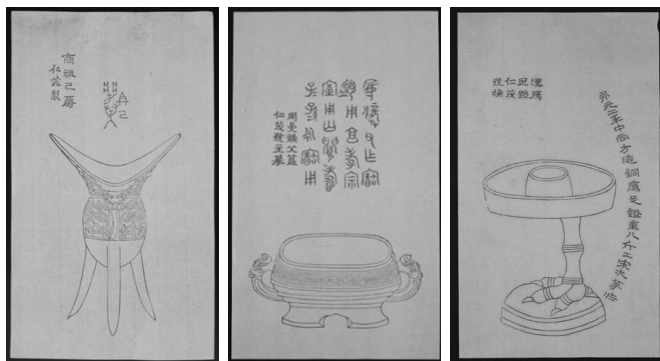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인물을 크게 확대하여 형상화한 문양이 있는 반면 산수풍경 속에 인물을 작게 배치한 시전지 문양도 있다. <그림 19-1>은 연꽃이 가득한 호수에 배를 띄워 뱃놀이를 하는 모습이며, 종이의 상단우측에 ‘消夏荷香’이라 하였다. 즉 ‘여름을 녹이는 연꽃 향기’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림 19-2>에서는 산골짜기

22) 淸 王倩의 칠언절구 『贈村女』의 제3·4구 “說道采桑蠶事緊 不曾制得踏青鞋”를 인용한 것이다.

깊은 곳에 한 남성이 가마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산 위 높은 곳에 정자가 있는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또한 ‘萬壑雲泉’이라는 문구를 통해 깊고 깊은 수만 골짜기의 산수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9-3>에서는 한 뱃사공이 강을 건너며 하늘의 기러기를 바라보는 장면인데, 함께 적은 문구를 통해 그 풍경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눈으로 돌아가는 기러기를 보낸다[目送歸鴻]’고 하여 돌아가는 기러기 때를 바라보는 뱃사공의 시야가 느껴지는 듯하다. 이와 같이 산수를 담은 시전지는 사람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풍경을 문구로 묘사하였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4 고대 鐘鼎 및 瓦當 銘文

청말 시전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周·秦·漢 등 고대 유물의 형태를 묘사하거나 유물에 기록된 銘文을 탁본한 문양이 등장하여 크게 유행하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고대 유물과 그 명문의 탁본을 문양으로 만든 시전지의 경우, 시전지의 문양별 분류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0> 고대 器物을 소재로 한 시전지 [모두 陳一鶚號 제작]

그 가운데 고대의 器物을 대상으로 그 형태와 명문을 문양으로 넣은 시전지의

예가 <그림 20>이다. <그림 20-1>은 商나라 기물인 ‘爵’을 문양한 시전지이다. ‘작’은 술잔으로 사용되었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 주전자 모양의 몸통에 참새부리 모양의 주둥이, 삼발이 형태의 긴 다리가 달려있다(<그림 21> 左 참고). 이 시전지의 문양으로 사용된 ‘작’은 상나라 14대 왕인 祖乙이 자손을 낳았을 때 기물을 제작하여 조상묘에 알렸다는 의미로 그림 위에 篆書로 ‘祖乙析子孫’이라 하였다.

<그림 20-2>의 문양은 周나라의 ‘簠’이며 고대에 음식을 담는 제기로 사용되었던 기물이다. 궤의 형태는 몸통이 후중한 원형을 이루고 있고, 주둥이 넓고 속이 깊으며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그림 21> 右 참조). 궤 위에 篆書 내용은 주나라 曼龍父가 宗室에 효도하는 용도로 寶簠를 만들었으니 자자손손 영원히 보배롭게 쓸 것을 염원한다는 내용의 銘文이다. <그림 20-3>은 漢나라 기물인 鴈足鐙이라 하며 기러기 다리 모양의 촛대이다. 안족등 옆에는 ‘永元 2년(후한 2년) 中尙方에서 銅으로 안족등을 만들었다. 무게는 8근, 장인 宋次 등이다’고 하여 제작처와 재료 및 장인을 기록한 명문을 함께 새겨 넣은 사례이다.



<그림 2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爵’과 ‘簠’ <그림 22> 方足布와 蒼玉佩의 형태

고대 기물 이외에도 고대의 貨幣나 허리에 차던 珮를 문양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23-1>은 고대 화폐인 布錢 중 方足布이다. 방족포는 쟁기 모양을 본떠 만든 화폐이며, 춘추전국시대에 鄭·衛·宋나라 등에서 처음으로 주조되었

고 전국시대 초기에 燕나라에서 가장 널리 상용되었다고 한다(<그림 22> 左 참조). 시전지의 방죽포 문양 아래에는 언제 누가 문양을 본뜬 것인지를 설명하였다. 辛巳년 穠월에 桐巢라는 인물이 본뜬 것이며 錦盛에서 제작한 시전지라고 하였다. 화폐의 문양을 사용한 또 다른 사례인 <그림 23-2>의 문양은 漢나라 때 사용하였던 ‘君宜官祿錢’을 본떠 만든 것이고 금성에서 제작한 시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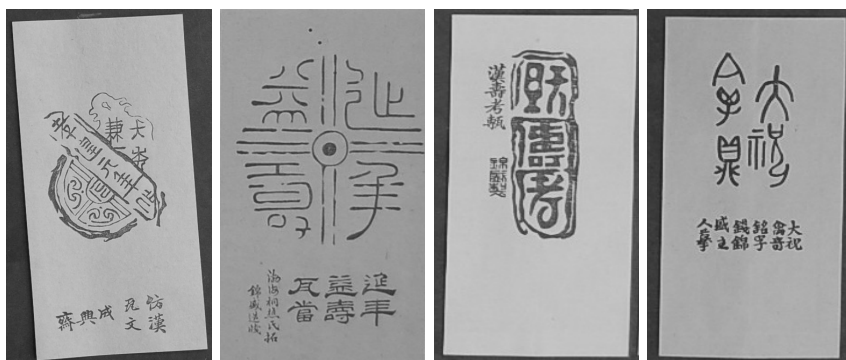


<그림 23> 고대 貨幣와 珮를 소재로 한 시전지 [모두 錦盛 제작]

<그림 23-3>과 <그림 23-4>는 허리에 차던 장식품 珮를 문양으로 제작한 시전지이다. 전자의 문양은 ‘夔龍佩’인데 용의 몸체 상부가 퇴화하여 작은 날개가 달려있으며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발 하나 달린 기룡 형태의 패이고, 후자는 창옥으로 만든 蒼玉佩를 문양으로 사용하였다(<그림 22> 右 참조).

고대의 기물·화폐 이외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瓦當·벽돌 등의 문양과 문자를 탁본한 것이다. <그림 24-1>, <그림 24-2>, <그림 24-3>은 모두 한나라 시대의 기와나 벽돌 문양을 본뜬 것이다. 첫 번째는 한나라 瓦文을 본뜬 문양으로 成興에서 만든 시전봉투이고, 두 번째는 한나라 사람들이 길상을 기원하는 뜻으로 ‘延年益壽’를 새긴 와당 문양의 시전지이다. 시전지의 좌측하단에는 청대 서화가 葉圭祥(자는 印山, 호는 桐樵 또는 韓廷)이 탁본한 것을 錦盛에서 제작하였

음을 표기하였다. 세 번째는 한나라 때 長壽를 염원하는 뜻으로 새긴 벽돌[甁]의 명문을 본떠 금성에서 제작한 시전봉투이다. <그림 24-4>의 시전봉투는 西周 초기의 銅器에 있는 명문인 ‘大祝禽鼎’을 본뜬 사례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고대 유물과 문자에 대한 청대의 관심이 시전지 문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4> 고대 유물의 銘文을 문양으로 사용한 시전봉투와 시전지
[왼쪽부터 成興, 錦盛, 錦盛, 錦盛 제작]

4.5 기타

이상에서 소개한 화초 · 과채 · 동물 · 인물 · 산수 · 종정 · 와당 등은 시전지의 가장 대표적인 문양으로 박물관 소장 시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밖에도 중요한 문양을 몇 가지 더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茶器, 서책, 악기, 篆書로 된 문자이다.

첫 번째로 다기 문양의 시전지를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의 첫 번째 시전지에는 두 종류의 다기를 다른 색상으로 겹쳐 인쇄하였으며 ‘후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히 보호하게 한다[詒厥後來 永保無極]’는 문구를 함께 넣었고, 두 번째의 것은 별도의 문구 없이 차호의 측면에 ‘長樂’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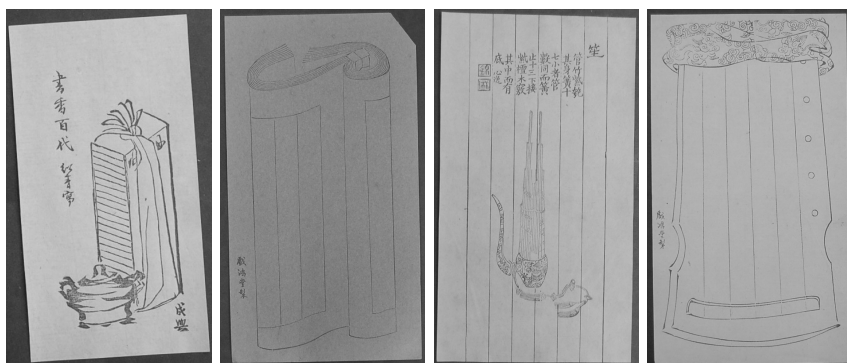
차를 마시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누리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의 다기는 현대적인 형태이며 차호 안에는 ‘옛 친구 찾아온 때가 언제런고, 차를 달이니 그리움이 더하누나[甚時來舊雨 煮茗活相思]’라는 문구를 넣어 차를 마시며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묻어나는 문양이다.²³⁾ 마지막 시전지 문양은 송의 대문호 蘇軾이 사용했다는 石銚를 소재로 다룬 것으로,²⁴⁾ 동파의 석요는 청대 화가 尤陰(1732~1812, 호 水村)이 자신의 집에 소장하고 있던 것을 궁정에 바친 후 石銚圖를 많이 그려 사람들에게 주었으며, 이후 이 석요도가 동파를 상징하는 소재로 널리 애용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상의 사례에서는 다기를 단독의 소재로 사용하였는데, 다양한 사례에서 다기는 花草 문양 등과 함께 배치되고 있어 청말 시전지 문양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그림 25> 茶器를 소재로 한 시전지
[왼쪽부터 錦盛, 麗華堂, 平安堂(友松), 平安堂(詩公) 제작]

- 23) ‘舊雨’는 오래된 친구를 뜻하는 말로, 杜甫의 시 『秋述』에 “평소의 친구들이 전에는 비가와도 찾아왔는데, 지금은 비가 오니 찾아오지 않는구나[常時 車馬之客 舊雨來 今雨不來]”라고 한탄한 데서 온 말이다.
- 24) 石銚의 왼쪽에 소식과 관련된 일화를 기록한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내용은 “東坡石銚는 尤水村이 궁중에 바쳤다. 이것은 그것을 본뜬 것이다[東坡石銚 尤水村父供天府矣 此摹之]”이다.

자주 등장하는 문양은 아니지만 간혹 서책과 악기류 문양을 볼 수 있다. <그림 26-1>과 <그림 26-2>는 成興과 戲鴻堂에서 제작한 것으로 서책을 소재로 하였다. 전자의 시전봉투에는 보자기로 싼 서책과 함께 ‘책의 향기가 100대를 간대[書香百代]’는 문구를 새겨 넣었으며, 후자의 문양은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서책을 펼친 형태로 편지를 쓰는 것이 서책에 글을 쓰는 느낌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그림 26-3>과 <그림 26-4>에는 생황[笙]이라는 관악기와 거문고 종류의 현악기를 문양으로 넣었다. 금성에서 만든 전자의 시전지에는 생황이 어떤 악기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대나무 관과 붉은 박통으로 이루어졌고 관대는 17개이며 아랫부분은 붉은 박달나무로 이었고 그 가운데에 구멍을 뚫었으며 바닥이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생황 문양 위에 새겨져 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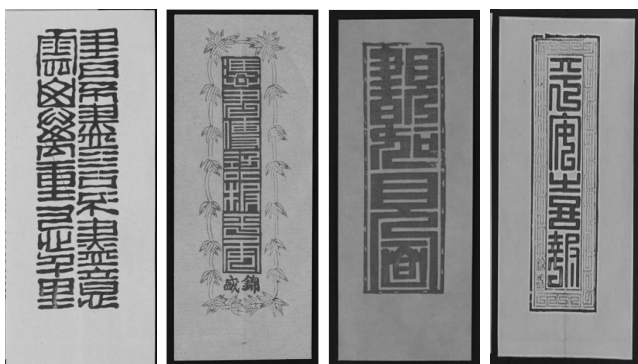
<그림 26> 서책과 악기류를 문양으로 한 시전봉투와 시전지
[왼쪽부터 成興, 戲鴻堂, 錦盛, 戲鴻堂 제작]

마지막으로 관심을 끄는 소재가 전서로 쓴 문자 문양이다. 전서가 하나의 문양 이면서도 글의 내용이 상대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함을 담고 있어 시전지에 애용되었다. 특히 시전봉투에 자주 사용되었는데 <그림 27-1>의 시전봉투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서로 담았다.

25) “管竹紫匏 其身簞 十七 小者管數同 而簞止十三 下接紫檀木 竅其中而有底.”

편지로 말을 다 하지 않으면 그 말이 뜻을 다 전하지 못한다지 書不盡言言不盡意
구름 낀 산은 겹겹 쌓였으나 이 내 맘은 천리 밖을 향한다네 雲山萬重寸心千里

편지의 내용이 내 뜻을 다 담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에 대한 내 맘은 언제나 당신이 계신 곳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시전봉투에 잘 어울리는 문구이자 문양이다. <그림 27-2>의 내용은 ‘그대 편에 부탁하오니 잘 있다고 전해달라[憑君傳語報平安]’는 내용으로 唐 岑參의 『서울로 들어가는 사신을 만나다[逢入京使]』라는 시구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 또한 상대방에게 보내는 소식과 안부를 표현하여 시전지 또는 시전봉투에 적합한 내용의 문구이다. <그림 27-3>과 <그림 27-4>의 시전봉투도 편지·소식의 의미를 전서로 표기한 사례인데, 전자에는 ‘편지를 보니 얼굴을 대하는 듯하다[見書如見面]’는 내용을 담고 있고, 후자에는 ‘平安喜報’라고 표기하였다. 고전적인 문양은 아니지만 청말 시전지의 특징을 말해 줄 수 있는 다기, 서책, 악기, 전서로 된 문자 등을 문양의 소재로 사용한 시전지를 마지막으로 소개하였다.



<그림 27> 篆書로 쓴 문자를 문양으로 사용한 시전봉투 [모두 錦盛 제작]

시전지에는 이상의 다양한 문양이 사용되었다. 서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문양에는 전거가 있고 고사가 있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 있었다. 편지를 보내는

이는 상대방에게 문양의 의미를 전달하려 하였고, 받는 이는 문양의 의미를 통해 보낸 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전문화로 인해 시전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시전지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상점과 이들이 제작하는 시전지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져 갔다.

5. 맺음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는 19세기 후반 왕실에서의 교유문화, 기별문화, 편지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왕실의 문화는 조선시대 상류층이 지향하던 문화이기에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류층의 문화는 다시 아래로 흘러들러 중·하류층의 문화에 흡수되었다. 따라서 왕실에서의 시전문화가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 왕실 사람들이 사용하던 시전지의 제작과 구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부분은 조선시대의 기록문화와 편지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이들 시전지는 북경·상해·소주 등지에서 제작된 청나라 생산품이 19세기 후반 국내의 수입을 통해 왕실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물품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특히 당시의 시전지가 판매되던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판매·보관되었던 箋匣과 시전지 제작처의 안내문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 가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전갑에는 제첩 형식으로 시전지를 제작하였던 상호명이 붙어 있어 그 제작처를 알 수 있고, 전갑 속에는 제작판매 상점의 안내문이 있어 해당 상점의 위치와 판매물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중국에서는 시전지를 포함한 문방사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전문상점들이 등장하여 성행하였고 19세기 후반 조선에서의 華商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청말 수입품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전갑 속 안내문을 살펴본 결과, 청말 시전지를 제작·판매하였던 곳으로 북경·친진·소주·상해 등지에서 활동하였던 전문업체인 성흥·금성·문미재·여화당·희흥당 등 10여 곳의 전문상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시전 등의 가공된 종이, 필묵, 인주, 안료에서부터 부채, 병풍, 대련, 족자 등의 서화를 제작·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골동, 현판 등도 취급하였으며 서화의 장황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말 시전지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화려한 색상의 종지와 다양한 종류의 문양이며, 다색의 문양 인쇄, 화려한 형태의 시전봉투 등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양에 따라 내포하는 고사나 의미가 있어 시전지를 통한 당시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시전지를 花箋紙라고 부를 만큼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花草와 果菜 문양, 편지·소식을 상징하는 중요 소재인 물고기와 기러기[魚雁] 문양, 시구에 등장하는 인물, 눈에 담고 싶은 명소의 산수풍경, 희귀한 고대 유물과 銘文, 이외에도 다기·서책·악기·전서 문자 등 다양한 형태의 시전지가 제작되어 유행하였던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는 왕실의 소식문화와 정보교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청말 시전지가 19세기 후반 이후 조선 사람들의 편지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의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 및 전문상점 안내문.

『錦溪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度支準折』.

『太平御覽』.

『(影印)文淵閣四庫全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5.

『上海輕工業志』.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劉運峰. 『文房清玩-箋紙』. 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6.

고바야시 히로미쓰, 김명선 역. 『중국의 전통판화』. 시공사, 2002.

고연희. “조선시대 시전지의 판화 고찰.” 『미술사학보』 제23집(2004). 미술사학연구회.

국립고궁박물관. 『명성황후 한글편지와 조선왕실의 시전지』. 국립고궁박물관, 2010.

손계영. “조선시대 詩箋紙 사용과 시전문화의 확산.” 『고문서연구』 제38집(2011). 한국고문서연구.

손계영. “조선시대에 사용된 시전지의 시대적 특징.” 『서지학연구』 제36집(2007). 서지학회.

신윤진. “韓國 詩箋紙版의 무늬와 意味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조용진.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 1989.